

## 충남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올해에도 이어간다

충청남도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재해구호기금 73억 4300만 원을 투입한다. 이번 지원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도는 2023년부터 전액 도비로 재해구호기금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1월 6일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7만 3430가구로,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한다. 시설수급자와 장기입원 단독가구 등 시장·군수가 난방비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대상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지원규모는 2023년 6만 6615가구 66억 6150만원, 2024년 6만 5740가구 65억 7400만원, 지난해 6만 7513가구 67억 5130만원이다. 앞서 도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대상 가구를 확인해 수급자(가구주) 계좌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마쳤다. 도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이번 난방비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보은군 구병산관광지에 800억 원 민간투자한다

충북 보은군은 3일 충북도청 여는마당에서 충청북도·리마드관광㈜과 ‘구병산관광지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최재형 보은군수, 문병숙 리마드그룹 회장, 문유선 라미드관광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리마드관광㈜는 마로면 적암리 일원 약 37,000㎡ 부지에 총 800억 원을 투자해 2026년부터 2031년까지 관광호텔 54실과 콘도미니엄 30실, 복합커뮤니티센터, 실내스포츠센터 등 관광숙박시설과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앞서 민간투자사업 제안 공고와 심의를 거쳐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평가 결과 리마드관광㈜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충청북도와 보은군은 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리마드관광㈜는 지역 주민 우선 채용과 지역 건설업체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다.

보은군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및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2027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속리산권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객 체류 기간이 늘어나고, 지역 소비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진 기자

## 대전시, 일본 삿포로와 실리 협력강화

삿포로시와 자매결연 15주년…눈축제 등 공식 초청 받아, 국제교류 강화



대전시는 자매결연 15주년을 맞아 일본 삿포로시 공식 초청으로 2월 3일(화)부터 5일(목)까지 2박 3일간 삿포로를 방문한다.

삿포로 눈축제 공식행사 참석을 비롯해 비즈니스 상담회 등 경제교류 확대, 자매결연 15주년 기념행사 등을 통해 양 도시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3일 공식 일정 첫날에는 훗카이도청 구 본청사를 찾아 역사건축물 보존 및 도시재생 사례를 시찰하며, 향후 대전의 원도심 활성화·공공자산 활용 정책과 연계 가능한 시사점을 살폈다.

이후 삿포로 시청에서 아카모토 가쓰히로 시장과 면담을 갖고, 축제·문화·관광을 비롯해 인적교류와 청년·교육·도시정책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4일 둘째 날에는 삿포로 눈축제 개막식 참석 및 축제장 시찰을 통해 국제행사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 대표로 국제설상조각대회에 참여한 대전 조각가 3명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전의 문화예술 역량을 해외에 알리고, 향후 국제문화교류 확대 기반도 다질 계획이다. 또한 같은 날 오후에는 ‘대전-삿포로 비즈니

스 상담회’를 개최해 양 도시 기업(대전 19개사, 삿포로 30개사 내외) 간 비즈니스 매칭과 경제교류를 본격화 한다.

또한, 15주년 기념 리셉션에서는 양 도시 시장이 모래시계에 모래를 넣는 퍼포먼스를 하며 지난 15년의 협력 역사를 기념하고, 우정의 약속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출발을 선언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2026년 대전에서 열리는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orld Conference on Photovoltaic Energy Conversion-9, WCPEC-9)’ 개최를 알리기 위해, 2월 한 달 동안 유통성이 거리 스카이아트에서 총회 홍보영상을 상영한다.

세계태양광총회는 세계 3대 태양광 학술대회를 4년에 한 번 통합해 여는 태양광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행사로, 2026년 총회는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상영되는 홍보영상은 약 60초 분량으로, 세계태양광총회의 주요 프로그램과 개최 일정을 핵심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채봉 기자

## 세종 지역 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합니다!

2월 4일~23일까지 접수…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106개 지원 성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지역 기업의 맞춤형 디자인 개발을 돋는 ‘2026년 상반기 세종시 디자인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관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위해 추진되며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106개 지역 기업과 예비창업자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했다.

올해 사업 지원 분야는 ▲브랜드(로고) ▲상품포장 ▲홍보물(브로슈어·사업계획서) ▲전시부스 고래피디자인으로, 이 중 1개를 선택하면 된다. 다만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쇄비나 사진 촬영비 등은 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 사업 참여 대상은 지역 청년(예비)창업자, 농업인, 일반 사업자 등이다. 청년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세종시에, 일반인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모두 세종시에 둬야 한다.

참여 신청은 시 누리집 공지사항에 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박형국 정책기획관은 “디자인은 기업의 가치를 시장에 전달하는 중요한 경쟁력”이라며 “이번 사업이 지역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돋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가 3일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아프거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내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오는 3월 27일 국가 정책 사업으로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는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 관계기관 대표, 현장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통합지원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지역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 설정과 실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식과 함께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실행 계획을 심의했다. 시는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종형 통합돌봄’을 완성할 방침이다.

이채봉 기자

## 소망을 담아, 새로운 시작을!

설날,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여러분의 꿈도 빛나기를 바랍니다.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 탄소중립과 마을관리를 함께해요

탄소중립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관리소 운영 추진

충청남도는 기후위기 속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탄소중립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과 ‘충남 마을 관리소 운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은 2024년부터 시행 중으로 각 주민 주도의 저탄소 생활 문화 확산과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이 목표이다. 먼저, 탄소중립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주민 모임이나 단체가 직접 탄소중립 실천 과제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 5명 이상 모임·단체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오는 13일까지도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거주지 소재 시군 마을공동체 담당 부서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내 15여 개 단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선정된 공동체에는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자원순환(재활용, 업

사이클링) 프로그램 운영 △탄소중립 실천 교육 및 캠페인 △탄소중립 미디어 활동 등이다. 도는 이를 통해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자생적 실천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거지의 취약한 기반시설을 보완하고,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 마을관리소는 올해 4곳을 추가 조성한다. 마을관리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노후·저층주거지 지역 주민들에게 △간단한 접수리 △공구 대여 △무인 택배 보관 스마트 등을 순찰 등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4곳(당진 우강·고대면, 태안 소원면, 부여 초촌면)에 조성했고, 올해는 지원 유형을 나누어 주민자치회 전환 지원 2곳, 차지모델 지원 2곳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역 내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서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소통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한다.

이현진 기자

## 삶을 기록하는 장수사진 촬영봉사



대전 중구 석교동(동장 강민서)은 3일 석교동 자원봉사협의회(회장 송진실)가 석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어르신 25명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활영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장수사진 활영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소중한 추억을 남겨드리고,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마련되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대전라온사진봉사단과 대전중구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참여해 사진 활영과 진행을 지원했으며, 자원봉사협의회 회원들은 활영에 앞서 어르신들의 머리 정돈과 외모를 세심하게 살펴드리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활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다.

활영된 사진은 보정 및 인화 과정을 거친 후, 액자에 담아 참여 어르신들에게 전달되어, 어르신들께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추억을 선물할 예

정이다. 송진실 회장은 “장수사진은 어르신의 삶이 담긴 소중한 기록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어르신들께 기쁨과 추억으로 오래 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민서 동장은 “정성을 다해 준비해주신 자원봉사협의회 회원들과 함께해 주신 대전리온사진봉사단 및 대전중구자원봉사센터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장수사진 활영이 어르신들께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란다”라고 답했다.

한편, 중구는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저소득 가정을 위한 설 명절 지원금 3천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전달된 지원금은 저소득층 600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별 5만 원씩 개별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채봉 기자